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개관

지역 청년 소통·다양한 활동 지원·문화 교류 중심지 기대

순창군이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문화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군은 18일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축하하는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은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설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최영일 순창군수, 지역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청년문화센터는 군청 앞 경천 건너편(순창읍 교성2길 25)에 위치해 있으며, 총사업비 22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의 주건물(연면적 533㎡)과 부속건물(98㎡)로 지어졌다.

센터 1층에는 청년정책팀 사무실, 다목적실, 방음실, 커뮤니티홀이 마련돼 있으며, 2층에는 인구정책, 도농교류, 귀농귀촌팀 사무실과 함께 소회의실, 동아리방, 북카페 등이 조성되어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군은 청년 정책을 주관하는 인구정책과 사무실을 이곳으로 이전해 순창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주요 정책으로 이어



순창군은 18일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축하하는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질 수 있도록 센터내 공간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시설을 둘러본 참석자들은 "커뮤니티홀과 동아리방 등이 부족해 순창 청년들의 소통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청년문화센터가 조성되어 청년들의 활동 범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입을 모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청년문화센터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되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문화센터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목적실, 방음실, 소회의실, 동아리방은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건강한 여름나기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

남원시보건소는 장마로 대기 중의 습도가 높게 유지되고 체감온도가 상승하는 무더위 속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예방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폭염이 예고된 경우에는 △낮 시간대(12-17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그늘)에 머물러야 하며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야 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 밝고 헐렁한 옷을 입으면 예방에 도움이 된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남원시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증가, 사례를 보면 발생 시간은 오후 2시~5시 사이였으며 발생장소는 실외 작업장이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성이 67%를 차지하고, 연령은 2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온열질환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작은 실천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대두식품, 협약 체결

순창군 출연기관인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은 지난 17일 세미나실에서 (주)대두식품과 쌀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성 발효소재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대두식품은 쌀가루 전문브랜드인 '햇쌀마루'를 가지고 있는 전북지역 대표 기업으로, 제과·제빵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쌀 가공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가공생산기업으로 쌀가루, 냉동생지 등을 1,610여개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연간 가공용 쌀을 약 3,600톤 가량 사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측은 지역쌀 소비촉진을 위한 가능성 발효소재를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사업화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상호 선도적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을 합해 쌀발효 가공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쌀의 소비 촉진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순창쌀과 흥국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품소재 개발 과제'를 진흥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순창흥국쌀의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전북 쌀가루 최대 가공시설을 보유한 대두식품과 함께 협력해 순창쌀의 소비촉진을 위한 쌀발효소재 사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은 18일,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새벽부터 활동하며 국회를 방문했다.

국가예산 확보 협치 시동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 국회 찾아 지원 요청

남원시 민선식 부시장은 18일, 2025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건의를 위해 새벽부터 활동하며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구 박희승 의원을 비롯하여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이성운 의원 등 제22대 전북 지역구 의원실을 방문해 소통하고, 취임 인사 및 내년도 남원시 국가예산확보에 한 뜻이 되어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민주당 당론 결정과 함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박희

승 의원이 대표 발의함에 따라 다시 한번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국립의화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위한 법률안 통과와 지지를 요청했으며, 남원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기획재정부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전북자치도와 지역구 국회의원과 협력해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민선식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공조하여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23일 3분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 실시

임실군이 오는 23일 임실군청 광장에서 3분기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사회로 인한 중증 수혈 환자 증가와 헌혈자 감소에 따라 혈액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된 현 상황에서 안정적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에 사랑 나눔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과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에도 1, 2분기 2회에 걸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안정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 지속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헌혈은 만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헌혈 참여자는 혈액검사를 통한 건강 상태 체크와 헌혈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과 상시학습 4시간 인정 및 소정의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료원, 감염관리 컨설팅·교육 실시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원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감염 대응능력 향상 및 지역 내 감염예방을 위해 관내 감염 취약시설의 네트워크 구축과 감염병 위기대응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남원권 감염취약시설의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감염취약시설 12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 수요조사를 파악한 바, 감염 취약시설 감염관리 교육에 반영

하여 종사자들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감염 관련 방문형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손 위생,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법, 환기 및 환경관리의 중요성, 손 씻기 뷰 박스 체험, 손 오염도 측정 체험 등이며, 컨설팅 내용은 음 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음 환자 발생 가장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 모의훈련, 음 환자 발생 시 동선 관리 안내, 음 환자 환경관리, 청소·소독 방법, 개인보호구 착용·탈의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한문철 변호사 초청
25일 Play남원 아카데미

남원시는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명사들을 초청하여 매월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오는 25일 오후 7시에는 순창문화예술회관에서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로부터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7월 Play남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한문철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는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맨 인 블랙박스 등 여러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매우 친숙한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특히 이번 Play남원 아카데미는 교통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어간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교통사고 대처법부터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까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교통정보들로 가득 채우는 유익한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로도 실시간 송출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운암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 예방교육

임실군 운암면이 지난 16일 노인일자리사업(마을지킴이)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동영상 교육과 참여자 간에 친목을 다지고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규현 운암면장은 "여름철 무더위에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을 최우선으로 건강에 유의하여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람 있는 사업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관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